

보도시점

배포 즉시

배포 2026. 07. 14.(화) 14:00

국가AI전략위, ‘AI 데이터센터 산업생태계 육성 간담회’ 개최

- 업계와 함께 AI 데이터센터 적기 공급 및 연관 산업 육성방안 모색
- 업계 애로사항 청취 및 세제지원·규제완화 등 정부 지원방안 논의

【관련 국정과제】

20. 인공지능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인공지능 고속도로 구축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위원장 이재명 대통령, 이하 ‘위원회’) 산업AX·생태계 분과는 7월 14일(화) 오전 10시 서울스퀘어 16층 회의실에서 ‘AI 데이터센터 산업생태계 육성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6월 29일 발표된 ‘3대 메가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실행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GPU 수급 등 AI 데이터센터의 적기 공급을 저해하는 병목 요인을 점검하고, 국내 산업 생태계의 역량을 결집해 AI 데이터센터를 국가 AI 인프라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3대 메가프로젝트: ❶ 반도체, ❷ AI 로봇 등 피지컬 AI, ❸ AI 데이터센터

간담회에는 위원회 산업AX·생태계 분과, 공공AX 분과, 기술인프라 분과 및 지역특위 위원을 비롯해 네이버클라우드, 메가존클라우드, 삼성SDS, 엘리스그룹, KT클라우드, LG CNS, NHN클라우드, SK텔레콤 등 AI 데이터센터 운영 사업자와 LS일렉트릭, DL이앤씨 등 전력설비·건설 분야 사업자가 참석하였다.

서용태(삼일회계법인 리더), 김명국(산업AX·생태계 분과위원), 박성준(LS일렉트릭 실장) 등 산업계 전문가가 발제자로 참여해, 국내외 구축·투자 사례를 바탕

으로 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공급망(밸류체인) 형성 및 종합 인프라 구축 전략을 발표했다.

발제와 토론에서는 GPU 확보를 넘어 전력·냉각·부지 등 AI 데이터센터 운영에 필수적인 종합 인프라를 확충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전후방 연관 산업의 육성 방안을 함께 모색하였다. 특히 데이터센터 구축에 필요한 국내 부품·설비 산업의 동반성장과 수출 산업화 가능성을 살펴보는 한편, 세제 지원과 규제 완화 등 정부가 제도적 병목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하였다.

참석자들은 퍼지컬 AI, 에이전틱 AI 등의 발전으로 컴퓨팅 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AI 데이터센터의 적기 공급이 국가 AI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사안임에 공감했다. 또한, AI 데이터센터 산업생태계 육성을 위해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준희 산업AX·생태계 분과위원장은 "AI 데이터센터는 단순한 GPU의 집합을 넘어 전력설비, 첨단냉각기술, 건설역량이 결합된 거대한 종합 인프라이자, 글로벌 AI 3강 도약을 이끌 핵심 동력"이라며, "국내 기술의 자립과 튼튼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을 주도하도록 아낌 없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이번 간담회에서 제시된 업계의 제언을 바탕으로 국내 AI 데이터센터 산업의 안정적 공급 기반을 마련하고, 전후방 산업생태계를 확대하기 위해 관계부처의 법·제도 정비와 부처 간 협업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끝.

담당 부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AI사회산업팀	책임자	팀 장	박성일 (02-2224-4151)
		담당자	서기관	이제홍 (02-2224-4152)
			전문관	장윤희 (02-2224-4158)

